해외 양계업은 지금……

서독
제1회 IB 국제심포지움 개최

IB만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이 열려 양계산업에 있어서 이 질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마르부록 근교에서 '88년 6월에 개최되어 12개국 대표로부터 40개가 넘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미국, 캐나다, 동서유럽, 아시아, 호주에 있어서의 IB의 역학적 검토, 대장균증을 내포한 신장형 및 장관형 IB 바이러스주의 병원성, IB바이러스의 항원형을 분류하기 위해 시작한 분자생물학적 검색, IB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 더욱이 특별 분과로서 IB바이러스 혈청형분리에 관한 종래 및 최신의 방법이 채택되었다.

최종 분과는 복수의 혈청형에 대응할 수 있는 생(生) 및 불활화백신을 위시한 백시네이션 연구의 새로운 시도로 종결되었다.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IB바이러스가 단순히 호흡기병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었고 그 외에 IB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 여러가지 요인 바이러스주라든가 백시네이션 뿐만 아니라 계종, 환경, 사료영양, 기타의 병원미생물 등이 증상 발현에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

태국
태국의 냉동계육 수출현황

개월 / 국가	3개월 합계	6개월 합계	9개월 합계	연합계
일 본	19 025.4	40 402.2	61 058.9	86 421.7
싱 가 폴	1 198.1	1 782.5	2 393.2	2 633.5
홍 콩	329.8	499.3	670.7	1 074.0
쿠웨이트	224.7	291.7	360.3	492.1
독 일	390.9	459.8	502.8	617.8
두 바 이	11.5	11.5	11.5	11.5
사 우 디	69.5	69.5	116.0	116.0
브르네이	—	20.7	43.8	55.5
네덜란드	—	—	69.0	115.0
합 계	21 250.0	43 537.2	65 226.2	91 543.1
'86비교	16 355.2	34 458.1	53 354.2	79 223.3
변 화 율	+29.93	+26.35	+22.25	+15.55

인도
가공산업 현대화 추진

금년 9월말 시공을 마친 인도의 최신식 양계산물 가공공장 플랜트 건설에 5천만 Rs가 소요되었다.

화란 Stork와 인도의 Asian Agro Farm이 합작으로 추진되었는데 재원지원은 IFCI, ICICI, Canara Bank가 하였다.

이 플랜트에는 도계장, 가공처리장(보로일러 16,000수에서 20,000수까지, 노계)으로 되어 있는데 매일 8시간 작업을 하게 된다.

브라질
닭고기생산 최대지역으로 부상

브라질의 최대 양계와 양돈 농장 3개중 2개가 Perdigao와 Chapeco에 위치하고 있는데 중심지가 산타 카타리나이다. 산타 카타리나는 닭고기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서부지역이 양계산업 중흥지역으로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를 통해서 발전을 가속화 시켜왔다.

브라질은 세계 닭고기 수출의 20%를 차지할 만큼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다. 수출증진을 위해서 총판매량이 40%에서 60%가 될 계획을 종합검토하고 있다. 수출시장의 새로운 개척지는 일본으로 현재 일본은 Chapeco로부터 냉동닭고기 180톤을 수입해 가고 있다.

캐나다
생산자 감소로 시장 안정

캐나다는 생산자수의 감소로 인해서 산물가격이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8년 1/4분기에는 C.C의 중간판매가 사라져 시장이 매우 양호하였으나 직접 공급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생겨나기도 했다. 닭고기 저장량은 3백30만 kg으로 지난해보다 73%가 많아졌다. 브로일러는 저장량의 90% 정도가 로스터용으로 되어 있다. 87년과 비교해 볼 때 88년 가격은 저조한 편이다.

캐나다의 닭고기 생산추이는 88년초를 기준, 87년과 비교할 때 세미급이 69.4% 이상이고 로스터용은 3배 이상이나 된다.

필리핀
수입관세율 높이도록 요구

필리핀의 경제는 대부분 개방경제로 닭고기의 경우는 요리된 식품까지 수입이 된다. 주로 미국, 캐나다, EC 등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생산품이 홍수처럼 밀려들어와 양계산업을 무너뜨릴 것을 염려하고 있다.

필리핀은 대부분의 농산물 수입을 개방해 놓고 있는데 이에는 축산물과 양계산물이 포함되며 국가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IMF 국제은행에 가입하기도 하였다.

양계협회에서도 필리핀의 수준상 양계생산물의 수입개방은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 경제여건상 이같은 수입정책에 대비 경쟁을 해야할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 먼저 수입상품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의 양계산업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계육생산품의 수입은 관세가 50%로 되어 있다. 생산자들은 관세율을 60%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